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2. 5. 11(금)
제공사 :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
과 장 : 김 병 찬
사무관 : 김 용 득
전 화 : 500-2251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12년 5월 1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갯벌참굴」 첫 해외 수출 성공

- 홍콩, 마카오, 러시아 등 수출시장 활로 모색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5.2일 차세대 고부가가치 신품종인 우리나라 갯벌참굴 홍콩에 첫 수출(각굴 452kg, 3,012\$)
 - 3~4월 홍콩지역 시범수출로 위생안전 및 상품성 등 확인
 - 매주 홍콩 수출 예정으로 금년 1백만불 수출 전망
- ◆ 2020년까지 10억불 수출 목표로 갯벌참굴 양식생산기반 확충,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
 - '12년 태안 이원지구 20ha, 인천 옹진군 30ha 조성 추진
 - * 홍콩, 중국 등 국제식품박람회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추진

-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.2일 홍콩에 차세대 새로운 부가가치 전략 품종인 갯벌참굴 452kg(각굴, 3,012\$)을 첫 수출한데 이어 5.8일 1,102kg(7,248\$)을 수출하였고, 매주 1톤 가량 수출이 예정되는 등 점진적으로 수출물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.

- 이번에 수출된 갯벌참굴은 작년 12월 충남 태안군 이원지구에 조성한 갯벌참굴 시범어장(10ha)에서 생산된 것으로, 올해 3~4월부터 3회에 걸쳐 홍콩에 시범수출의 과정을 통해 갯벌참굴의 위생안전이 확인되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.
- 아울러 금년에 러시아, 마카오 등의 바이어들이 서해안 갯벌참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출조건을 협의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갯벌참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이들 국가에도 수출길이 열릴 전망이다.
- '갯벌참굴'은 기존의 바닷물 속에서 계속 키우는 일반굴과는 달리 갯벌에서 바닷물에 잠겼다가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홍콩, 유럽 등 해외에서 상품가치가 높다는 장점을 살려,
 - 금년 하반기 이후 태안 이원지구 30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10ha를 더 조성할 계획이며, 인천시 옹진군에도 80억원을 지원하여 30ha의 갯벌참굴 양식어장을 조성하는 등 양식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 -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년에 약 1백만\$의 수출이 전망되며, 2020년까지 10억\$ 수출을 목표로 2013년 이후에도 갯벌참굴 양식기반을 더욱 확충 지원하여 일본, 중국, 프랑스 등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는 육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